

## "죽음 권하는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

-<버킷 리스트 -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The Bucket List>(2007)-

윤성은(건국대학교 강사, 서울 기독교영화제 프로그래머)

### 1. 발단: '죽음'의 존재론

내러티브를 가진 예술이라면 대부분 스토리의 전개에 있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치기 마련인데, 극중 갈등이 심화되거나 긴장감이 고조되어 결국 폭발되는 후반부를 흔히 '클라이막스 climax' 혹은 '절정'이라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고대의 신화나 비극에서부터 클라이막스의 가장 흔한 클리셰는 누군가의 '죽음'이다. 인간사를 다루는 데 있어 이야기를 가장 자극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죽음'인 까닭이다. 그 어떤 설득력이나 인과관계 없이도 사건을 뺏어버리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일 빈번하게 사용되는 결말임에는 틀림없다.

'죽음'은 '삶'의 반대말이고, 결과적으로는 '부재'를 의미하지만, 있던 것이 사라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상실'의 개념이 더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극중 주요 인물의 죽음은 관객들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것을 전달한다. 영화마다 죽음을 다루는 방법도 천차만별이지만, 한편에 '극중 인물의 죽음'이 중요한 의미를 남기는 영화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죽음'이 하나의 캐릭터로 작용하여 등장인물들과 함께 극을 이끌어가는 영화도 있다. 후자의 경우, 굳이 베르이만 Ingmar Bergman의 <제 7의 봉인 Det Sjunde Inseglat>(1957)에서처럼 '죽음'을 사신(死神)으로, 혹은 또 다른 방법으로 형상화시키지 않더라도 시종일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성찰하게 해준다. 누구나 겪어야 하는 자연의 순리에 대해 미리 준비하게 해주는 기능을 지니는 것이다. 올 봄 개봉했던 록 라인어 Rob Reiner 감독의 <버킷 리스트 The Bucket List>(2007)도 그런 작품 중 하나이다.

### 2. 전개: <버킷 리스트>의 실행

이 영화는 작품성이나 완성도로 치자면 할리우드식 휴먼드라마 중에서도 그리 잘 만든 작품은 아니다. 다소 영성한 시나리오와 연출력을 두 명배우(잭 니콜슨, 모건 프리먼)의 친근한 연기로만 무마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세계 각지의 아름다운 풍광까지 가세되었으나 역시 현대 영화들이 보여주는 스펙터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만한 매력은 발산되지 못했다. 어렵거나 큰 결함이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반대로 아주 흥미롭고 대단히 잘 만든 영화라고 보기도 어려운, 한 마디로 덜 데워진 목욕물처럼 미지근한 작품이 <버킷리스트>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적어도 '향기'를 가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말초 신경을 잔뜩 긴장시켰다가 영화가 끝나면 크레딧과 함께 잊혀지는 작품이 아니라 살면서 새록새록 떠오르고 곱씹게 되는 몇몇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암으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자동차 정비사 카터(모건 프리먼)와 재벌 사업가 에드워드(잭 니콜슨)는 우연히 한 병실을 쓰게 되면서 '버킷리스트'를 만든다.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이다. 에드워드는 카터에게 그 일들을 실행해 옮길 것을 제안하고 둘은 병실을 뛰쳐나온다. 이들은 세계 각지를 찾아다니면서 스카이다이빙, 사냥, 산악 등반 등 그 동안 늘 가슴 속에 품고 있었지만 감히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나

가기 시작한다. 머리가 허연 노인들의 마지막 열정이 유쾌하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동안, 죽음을 앞두고 삶을 반추하는 그들의 대화는 관객들에게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버킷 리스트는 무엇인가?",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그 때 그 선택을 다시 할 것인가?",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우물쭈물 대답을 망설이게 만드는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상 정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나이에 관계 없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삶에 대한 사색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역할로 족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국의 비평가들이 악평을 쏟아낼 만큼 어설픈 이 영화에 있어 단 하나의 존재 가치이기도 하다. 사회의 부속품으로써 앞만 보며 달려가도록 시스템화 되어진 현대인들은 영화를 보면서 잠시나마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의심의 여지없이 '현재의 나'를 만든 것은 '과거의 나'이며, 그것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마다 결정을 내려준 '세계관'의 결정체로 현존한다. 시간의 일방향성은 타임머신을 SF영화 속의 물신(物神)으로 박제 시켜놓았기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잘못된 것을 되돌릴 기회는 딱 여생만큼 남아 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버킷 리스트'의 실행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그 분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 카터와 에드워드는 그런 면에서 행운아다. 자신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미리 알았으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비밀에 부치신 것은 재림의 시각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신 것처럼 순간순간을 마지막처럼 살라는 그 분의 명령임에 틀림없다.

### 3. 절정: 자살, 인문학, 그리고 인문학자

죽음을 맞게 되는 방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경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일 것이다. 로베르 브레송의 <무셰트Mouchette>(1967)는 의지할 곳 없는 소녀의 자살을 다루면서 소외된 인간의 비참한 정서를 심도 깊게 파고들지만, 우리 사회에서 들려오는 '자살'이란 그저 기사거리에 불과하다. 몇 년 전부터 한국을 술렁이게 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자살 보도는 그러한 경향을 잘 드러내준다. 올해 서울 기독교 영화제 홍보대사였던 연기자 이유리는 한 인터뷰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크리스찬 연예인'을 검색하면 자살한 연예인들의 기사가 뜬다고 말한바 있다. 놀랍게도 이것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며 어떠한 배후도 없는 사실이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1981)와 같은 작품을 만들었던 크리스찬 감독, 이장호도 연예계는 사탄이 가장 틈타기 쉬운 곳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故 안재환씨의 자살을 예로 들면서 안타까워했지만, 만 이들도 되지 않아 또 다시 故 최진실씨의 자살이 보도되어 충격을 안겨주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이는 톱스타들이 죽음을 결심한 참담한 사태를 범인(凡人)들은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렸지만, 결국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 있게 되는 것은 그들의 자살 사유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얼마만큼이나 되어있었던 것일까? 이미 '버킷 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간 후에 선택한 '완전한 해방'이었을까?

필자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란 크리스찬으로서, 타인의 자살에 대해 논박할 자격은 없어도 생(生)과 사(死)의 모든 절차가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는 확신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심정적으로 이해가 깊었던 자살 사유가 있었다. 올 초에 어린 딸을 남겨 두고 죽음을 선택한 어느 인문학 시간 강사의 자살이다. 일류대를 나와서 쉽 없이 공부하여 유학까지 다녀왔지

만 강의 자리 하나도 안정적으로 얻기 힘든 처지가 된 것이 한탄스러워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까지 가게 된 것이다. 당연하게도 필자의 처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죽음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녀의 상황을 120% 이해할 수 있었다. 이공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문학 만큼이라. 죽음의 공포 보다 생활고가 더 견디기 어려운 배고픈 인문학자들은 존경 대신 지식의 대가를 구걸해야 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인간에 관한 학문을 하는 이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해결책, '죽음'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이제 이 땅에 진정으로 인간의 가치와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하려는 이들이 말 그대로 사라져가고 있음을 비유하기 때문이다. 인문학의 죽음과 인문학자의 죽음, 베르테르 효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려 한다면 사기꾼이라는 소리나 듣지 않을런지 가슴 한 구석이 뜨끈뜨끈해져 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킷 리스트'를 준비한다는 것은 일견 무의미해 보인다. 인문학자 뿐만 아니라 죽음을 근거리로 두고 있거나, 죽을 만큼 괴로운 이들에게 '버킷 리스트'는 얼마나 한가롭고 사치스러운 이야기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 4. 결말: 준비된 죽음의 미학

'버킷 리스트' 최고의 선물은 무엇보다 행복한 죽음을 맞게 해준다는 점이다. 카터와 에드워드의 죽음이 그랬다. 뒤늦게 만난 친구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며 평생 안고 살아야했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그들은 눈물이 날 때까지 웃으면서 평안하게 숨을 거둔다. '버킷 리스트'의 힘은 그런 것이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 '카르페디엠'의 진정한 의미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돌연사든, 충동적인 자살이든, 병사든, 사고사든, 잘 죽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사신을 친구삼을 수는 없어도 최소한 그가 두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죽음 권하는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남는 법이다.

어느덧 연말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랫소리들이 자주 귓가에 들려온다. 말구유에 누우셨던 그 분에 비한다면 우리의 탄생은 상당히 우아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도 그 분만큼 고귀할 수 없다. 다만, 그 분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은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지 모른다.

"너는 누구냐?"

"네게 남은 버킷리스트는 무엇이냐?"

"너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느냐?"